

# 統一教育 方案의 探索

金 恒 元\*

## 目 次

- I. 머리말
- II. 統一과 統一教育의 意味
- III. 統一國家의 理念과 統一教育의 方向
- IV. 民族同質性 回復 및 民族共同體 意識涵養
- V. 民主市民의 資質涵養
- VI. 맺는말

## I. 머 리 말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주의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은 남북한에도 멀지않은 장래에 통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동서독의 통일과는 다르겠지만 독일의 통일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보면,<sup>1)</sup> 첫째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동구권에 준 영향, 둘째, 서독의 국민의 자유와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 복지정책, 셋째, 동독 사람들의 자유와 부에 대한 열망이다. 독일의 통일은 1990년에 이루어졌지만, 서독의 각급 학교가 통일을 앞당기고 그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작한 것은 그 보다 훨씬 앞서 1978년이다.<sup>2)</sup>

동서독은 분단되어 있으면서도 교육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계속해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교수,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1) 이종서, "독일의 통일과 교육", 「새교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1.1, pp. 86~87.

2) 김신일,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 상계서, p. 43.

서 심어 왔으며, 인적 물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들어나는 것을 보면, 남북한이 현재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그 갈등과 문제점은 독일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런 갈등과 내부분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점차 회복하고 민족정체성을 심어줌으로써 정신적 통합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sup>3)</sup>

본 논문은 먼저 통일과 통일교육의 의미를 살펴 본 후에 통일국가의 이념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검토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은 민족동질성 회복 및 민족 공동체의식 함양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됨을 밝히려고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일교육으로서의 민족동질성 회복 및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 II. 統一과 統一教育의 意味

### 1. 統一의 意味

통합(integration)과 통일(unification)이라는 개념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이란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구성하게 하는 것 또는 상호의존을 산출한다.”<sup>4)</sup>라고 정의되고 있다. 정치적 통합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근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실체에서 공동체의 어떤 관계나 또는 강력한 응집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통합은 두개의 상이한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단일국가 안에서의 통합조건이

---

3) 상계서

4) Joseph S. Nye,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21(1968), p. 858.

나 과정과 관련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간의 통합과 관련된 것이다. 전자는 국가통합과 후자는 지역통합과 관련된 것이다.<sup>5)</sup>

정치적 통일이란 어떤 정치체계가 하나의 국가 형태로 통일되는 國家形成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민족적 재통합은 문화적 이질성 또는 분열에서 생기는 잠재적, 현재적 갈등을 통합하는 民族形成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한다.<sup>6)</sup>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국의 재통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통합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보편적 의미는 “두개 이상의 주권적 행위 주체가 하나의 행위 주체로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정 영역 내의 인간집단 내에서 개개인간의 이해와 견해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간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기구가 제도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sup>7)</sup>

지난 40여년간 분단된 민족이, 그리고 이념적으로 상반된 체제들이 통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지난 2년여간 統一論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sup>8)</sup> 첫째 통일이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둘째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제반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셋째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남북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 넷째 민족 구성원의 구체적 삶의 내용을 담은 통일 국가의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통일은 자주, 평화,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적 합의에 반영된

5) 李容弼 “기능통합의 이론적 기초 : 접근법과 적실성,” 「남북한 통합론」, 인간사랑, 1992, pp. 10~11.

6) 김갑철, “민족통일의 개념과 남북한 체제의 변화,” 「한국민족주의와 통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전국대학교수 세미나, 한국국민윤리학회, 1992. 7, p. 8.

7) 이상우, “민족통일의 과제,”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4, p. 161.

8) 李容弼, “민족공동체현장과 통일국가의 이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1991, p. 43.

기본 전제는 민족공동체의 회복 또는 형성이 機能的 統合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기능주의 통합론자에 따르면, 통일이란 “이전에는 정치적 유대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은 정치적 유대만이 있는 단위들로 부터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sup>10)</sup>이라고 한다.

## 2. 統一教育의 意味

통일교육은 크게 두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 통일국가가 달성된 후의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이다. 통일 대비 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등의 지식, 지적기능, 가치 태도, 행동 규범 등을 국민에게 습득시키는 학교 및 사회교육이다. 통일 이후를 위한 교육은 통일국가의 이념인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 및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시민자질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지적기능, 가치 태도, 행동 규범 등을 습득케하는 학교 및 사회교육이다.

본고에서는 통일교육의 개념을 통일 대비 교육과 통일 이후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Ⅲ. 統一國家의 理念과 統一教育의 方向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가 되는 통일국가의 이념은 무엇이며,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통일교육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1. 統一國家의 理念

통일국가가 어떤 이념적 指向을 띠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왔

9) 상계서, p.103.

10) 상계서, p.104.

다. 이것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등주의, 복지주의 등 근대 이후의 인류사를 점철해온 덕목들이 총망라되고 있으며, 대개의 결론은 그동안의 인류가 창출한 이념적 보편성과 한국의 민족주의적 특수성을 결합시키는 틀에서 탐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맺고 있다.<sup>11)</sup>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단일정부, 단일국가 실현 그 자체가 아니고 한 핏줄 한 겨레로서의 한국 민족이 보다 복되고 정의롭고 보람되고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생활, 즉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을 것이다.<sup>12)</sup> 그러나 통일국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첫째 민족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통일, 둘째 민족 자유의사가 고무 반영되는 민주적 통일,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조국의 위상과 통일조국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지표로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sup>13)</sup>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4)</sup>

이러한 민주국가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전횡이 없는 체제이어야 하고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한다.

李榮德은 통일한국의 일반적인 理念的 指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5)</sup> 첫째로 인간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요소이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자유에 따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통일 한국에서는 모든 차이와 갈등과 대립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는 공동체의식이 충만한 구성원들의 협동과 봉사가 특징인 사회이다. 공

11) 방영준, "통일국가의 이념적 좌표," 「한국민족주의와 통일」, 전계서, p. 164.

12) 梁性喆, "독일통일 실현과 한반도 통일 전망," 「남북한 통합론」, 전계서, p. 150.

13) 국토통일원, 「문답식 통일문제해설」, 1989, p. 32.

14)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기본 해설 자료)」, 1989. 9. 30.

15) 李榮德,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연구」 Vol. 28. No. 3. 1990, pp. 12~13.

동체의 목적을 나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성숙한 시민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통일 한국이야말로三一獨立宣言文에서 언명된 “도의로 다스려지는 사회” 이기를 소망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성숙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통일한국은 앞에 언급한 정신적 풍요에 더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사회이기를 원한다.

## 2. 統一敎育의 方向

통일교육의 방향은 통일의 의미와 단계, 통일국가의 이념 및 통일교육의 목표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통일의 의미와 단계 그리고 통일국가의 이념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1992년 6월 30일에 고시한 제6차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에서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국가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국토분단의 현실과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국가 실현의지를 갖추게 한다.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당면문제 및 통일국가 실현의 조건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한국인상과 국가의 미래상을 그려 보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게 한다.

李相周는 각 교육단계별 통일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6)</sup>

---

16) 李相周, “공산권 개방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토론요지), 교육정책 자문회의, 1990, p. 47.

	(1) 민주시민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	}	유아·초등교육
	(2)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		
사회교육	(3)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공산주의 체제와의 비교)	}	중학교교육
	(4) 통일의 조건과 장애 통일의 절차와 방안		
	(5) 통일 후의 국가 통합과정 통일 후의 체제와 이념	}	고등학교교육
			대학교육

이상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金信一은 통일을 앞당기고 이룩한 통일을 다지면서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이끌어갈 교육은, 그러므로 현재의 남과 북의 어느 한 쪽의 교육이나 또는 양쪽의 교육을 적당히 절충한 어설픈 교육은 안된다. 80여년간 단절되고 왜곡된 민족교육을 새시대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민족의 장래와 교육에 대한 역사의식과 철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육구상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칙이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첫째, 개개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여야 한다. 학습은 인간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둘째,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교육을 이용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목적에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한국인'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식민지 시대부터 우리의 교육은 남이건 북이건 범국민적 교육이 지배하였다.

17) 金信一, 전계서, pp. 47~48.

넷째,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교육제도이어야 한다. 학교본위 교육제도는 그동안 경험해온 바와 같이 학력사회를 만든다.

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8)</sup> 첫째,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을 위한 정치 사회적 제반 환경의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둘째, 통일역량 증대와 통일된 이후의 삶의 질에 핵심적 관건이 되는 민주시민적 자질과 품성을 통일교육의 중요 내용으로 도입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민주주의적 삶과 제도의 정착을 통한 일관성 있는 원리하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각급학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교육기관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

白種億은,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구가하는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으로 민족 통합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하며 통일된 조국의 세계사적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up>19)</sup>

첫째,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남북한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은 외적인 요인 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일방적이고 주입적인 통일의 당위성교육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면화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통일국가 및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관해서 국민 각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지식과 균형있는 사고 및 논의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18) 교육정책자문회의,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1990.9. p. vii.

19) 白種億,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 탐색,"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권 제13호), 1992. 봄, pp. 207~209.

다섯째, 통일교육은 과거 반공교육, 통일보안교육의 개념 및 내용 체제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통일국가 및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구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의 감정적 대립을 해소시키는데 정신적 가교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이질화된 문화체제의 동질화를 모색하는 이론과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곱째, 통일교육은 민족주의 이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남북한간에 일체의 무력행위를 배제하는 평화적 접근 방법으로 해야 한다.

여덟째, 통일교육은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현실상황과 남북한간의 현실적 상이성에 관한 교육과 이념 보다는 운택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전후 세대에 맞는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홉째, 통일교육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생존과 복리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갖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주장을 요약해 보면,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원칙인 자주·민주·평화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IV. 民族同質性 回復 및 民族共同體意識 涵養

### 1. 民族同質性 回復

지난 1945년 이래 국토의 분단은 남북한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異質化가 심화되어 왔다. 정치적으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 사회적으로 남한에는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등이 보장된 개방적인 사회인데 비해서, 북한에는 개인 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고 모든 재산이 국유 내지 공유화되어 있고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

가 제한되어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고 전통적인 가정생활이 많이 파괴된 폐쇄사회이다.

문화면에서도 남한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보존 발전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에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많이 없어지거나 변질 내지 파괴되고 있다.<sup>20)</sup> 북한의 언어 이질화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sup>21)</sup>

공훈가수, 인민가수, 소리관(레코드관), 수표(싸인 혹은 서명), 알촉만년필(볼펜), 일없다(웬찮다), 수감(장갑), 문화일(토요일), 그룹빠(단체), 은올내다(효과를 내다)… 등

남북한의 역사의 이질화 현상도 심각하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관이 추방되어 이른바 '主體의 社會歷史觀'- 主體史觀이 구축되어 왔다. 현재는 이 주체사관에 따라 역사가 서술되어 있으므로 민주주의사관에 기초된 객관성과 사실 위주의 북한사란 당초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 김정일의 결정적 역할만이 강조되는 속에서 서술된 것이다.<sup>22)</sup> 그리고 남북한 국사교과서를 비교 연구한 것을 보면 그 시각 차이는 충격적일 정도이다.<sup>23)</sup>

이와 같이 민족동질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기전 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분명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또한 같은 조상,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 동안 심각하게 이질화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교육이야말로 통일을 위

20) 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도해」, 1984, pp. 51~57.; 황성모, 「분단사회의 평가적 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 187.

21) 홍연숙, 「북한의 문화어와 언어정책」, 「북한의 현황과 인식의 문제」,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989, p. 126.; 국토통일원, 「남북도해비교」, 1984, p. 55.

22) 許東燾, 「북한역사의 서술현황 : '현대사'의 몇가지 문제점」, 「북한의 현황과 인식의 문제」, 상계서, pp. 115~122.

23) 康宇哲 申濬植, 「남북한 국사교과서(중학교)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57집, 1990, pp. 413~443.

해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의 민족이 되지 않고 정치적인 통일을 먼저 했을 때 결국은 내부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고 재분단의 길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유고 연방의 해체와 갈등에서 그 예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남북한간에 인적 물적교류와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갑철은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24)</sup> 첫째로 남북한 사회에 아직도 잔류할 것으로 생각되는 전통적 민족문화를 회복함과 동시에, 둘째로 남북한간에 사람, 물자, 정보 등과 같은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계기로 문화적 공동체의식이 싹트고 기존문화의 회복과 새로운 발생과정이 심화됨으로서 민족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진전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경우, 기존의 주입식 방법으로 이질화의 사례를 제시해주고 암기하게 한 후에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는 이질화 극복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없다. 남북한의 각 분야에서의 이질화 사례를 조사한 후에 발표를 시키거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토의하게 한다. 그리고 이질화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선택하도록 하며, 선택된 대안에 대한 각각의 결과를 고려해보게 한 후에 최선의 대안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언어, 문화, 역사, 예술 등을 더 좋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보지말고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좋은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한 객관적인 사실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판단할 때도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하며, 증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의 언어, 문화, 역사, 예술 등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람직한 기준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서 판단하도록 해야 할

---

24) 김갑철, 전게서, pp.10~11.

것이다.

## 2. 民族共同體意識 涵養

### 1) 民族共同體의 意味

공동체(community)라는 어휘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sup>25)</sup>

첫째, 집단구성원들간에 동질적 신념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문화 동질성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집단구성원들간의 상호관계는 직접적이고 다면적이어야 한다.

셋째, 집단구성원들간의 상호접촉은 호혜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 세가지 특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호혜관계이다. 동질적 문화의 공유나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인간관계는 공동체 형성의 핵심이 되는 호혜관계를 형성시키는 선행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추구와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은 자주성을 갖고 자유와 복지가 실현되며 평화가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 민족공동체는 다름아닌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약속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 2) 民族共同體意識 涵養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이 아닌 '우리'라는 '우리 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가정, 학교, 직장, 매스컴, 기타 사회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며 서로 적으로 보거나 미워할 대상이 아님을 강조

25) 金宗林,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론,"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1990, p.61. 재인용.

26) 李洪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초와 실천방안," 상계서, pp. 26~27.

하면서 민족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sup>27)</sup>

겉으로 보기에 저절로 된 것 같은 독일 통일 배경에는 20여년간이나 계속된 동서독인들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서독 사회가 성취하고 누린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있었다. 동서독인들은 서로 미워하거나 적으로 보는 일이 없었다. 오히려 도우려했고, 서로 협력했으며, 다같이 잘 살기를 원했다. 그들은 서로 방문하고 정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했다. 그들은 상대쪽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개인과 사회의 소망스러운 존재방식에 관해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이리하여 그들은 분단 상황에서 상반되는 체제속에 살아야 했기에 피할 수 없는 외형상의 차이를 가지면서도 보다 깊은 데서는 같은 독일인으로서 민족정체성과 참으로 잘 사는 삶에 대한 공통된 소망을 갖고 살아온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첫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둘째 동구의 반체제 인사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사상적 선례, 셋째 압제에 대항해서 일어선 동독 시민들의 용기 등이 상승작용을 이루어 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독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심어주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체제와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간에 교류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1992년 9월 17일에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부속 합의서를 공식 발효시키고 11월 중 분야별 공동위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합의서가 남북상호 핵사찰 문제로 인하여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에 교류의 전망을 밝은 편이다.

민족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동질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에 공통된 전통문화를 찾아내어 전파 발전시켜야 되며, 이질화된 문화는 민족공동체 문화로 승화 발전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상호교류는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인 동시에 통일을 위해서도

27) 李榮德, 전계서, pp.10~11.

가장 중요한 길이다. 분단된 남북한에 있어서 인적교류는 모든 접촉의 기본이 되고 상호 친숙해지게 하며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다. 남북한 주민간에 호혜관계가 유지되어야 민족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인적교류와 함께 매우 중요한 생활의 교류가 경제교류이며 이것은 이념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경제교류와 협력은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교류는 어렵고 예민한 분야이지만, 이데올로기와는 별로 관계 없는 전통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남북한은 1945년 이전에는 같은 조상,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가진 민족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분단과 6.25사변으로 민족공동체가 많이 훼손되어 버렸음을 주지시킨다. 그리고 수천년 내려온 민족공동체를 다시 형성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남북한간에는 사회, 문화, 풍습, 생활 등에서 공통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것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후에 민족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시킨다. 또한 시청각매체를 이용하여 남북한의 공통적인 문화를 보여 줌으로서 한 민족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외에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글짓기와 응변대회 혹은 발표회를 자주 가짐으로서 북한 사회와 주민에 대해서 호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학교의 의식생활과 담임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을 통해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지식교육 보다는 가치와 태도 및 행동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가치 태도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기관에서도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강좌를 설강하여 강의를 하거나 V.T.R이나 슬라이드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공통적인 문화를 소개한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시로 보도하도록 유도한다. 신문에서는 기획기사나 대담 기사를 보도하고, 방송에서는 공통적인 문화 소개를 자주 방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民主市民의 資質涵養

### 1. 民主市民의 意味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상호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고,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사회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 두차원의 교육을 상호 긴밀히 연계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sup>28)</sup>

민주주의는 인류가 현재까지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고 사상이며 생활양식이다. 이 지구상에 완성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는 계속 개선되고 심화되며 발전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넓고 다양한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존중과 자유와 평등이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주 평화 민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이 땅위에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된 통일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다.

민주적 인간이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수결원칙을 이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고 책임을 완수하며,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민주원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sup>29)</sup> 그리고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굳은 신념을 지니며,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 및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 2. 民主市民의 資質 涵養

---

28) 文龍麟 朴容憲,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교육정책자문회의, 1990. 9. p. 31.

29) 鄭世九, 「국민정신교육의 과제」, 교육과학사, p. 120.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가정 분위기가 민주적이 되고 사회와 직장 분위기가 민주적이 되며, 매스컴에서 민주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토의문화를 창조해나갈때, 특히 민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때, 시민적(참여적)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며 그런 가운데 민주시민의 자질도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교육은 주로 사회과와 도덕과 및 국민윤리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학생은<sup>30)</sup>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맹목적으로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時·空을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인 인간생명의 존귀함, 즉 인간존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의 이념으로 확신하는 자이다.

둘째, 인간에게 미래의 이상사회를 제시하는 청사진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설득력이 있고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자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경제에 도입한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는 각 개인의 경제활동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므로써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방법 및 기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는 시청각매체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감정을 내면화시키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지식을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인지적인 접근의 비중을 더 높인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고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또는 권위주의 국가를 비교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보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한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와 생활양식 중에서 주제를 택하여 발표 혹

30) 정세구,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의 실천방안」,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1992. 7, p. 7.

은 토의를 시키거나 글짓기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민주적인 思考 및 集團行動能力이 신장된 학생은 첫째, 민주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자질에 해당되는 반성적사고기능과 지적기능을 가진자이다. 둘째, 개인적으로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자이다. 셋째, 집단 상호작용의기능과 사회참여의 기능 등을 지닌자다.<sup>31)</sup>

반성적 사고기능과 지적기능을 신장시키려면 귀납적인 일반화 지도가 필요하다. 즉 문제를 인식하고 잠정적인 해결책이나 결론을 생각해보게 하며(가설 설정), 자료를 수집 평가한 후에 가설을 검증하게 하는 것이다.

문답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할 경우는 수렴적 질문과 확산적 질문 및 평가적 질문을 주로 사용하거나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한다.<sup>32)</sup> 토의수업에서는 반성적인 수업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즉 참여자들이 지지적이며 고무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반성적인 교수는 모든 생각들에게 개방된 환경과 동시에 목적적인 환경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문제를 함께 설정하고 검토한다. 교실수업에서 어떠한 강요나 강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대안책이 명확해야 하며, 이 해결책에 대해 각각은 신중히 검토하고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33)</sup>

合理的 意思決定能力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토의법과 문답법을 이용하여 논쟁점을 정의하고 확인한 후에, 가설을 설정하고 증거수집과 평가를 하여 가설을 검증하며 잠정적인 결론과 의사결정을 추출한다. 의사결정 과정을 요약하면, 문제의 인식과 정의→가치의 假定에 대한 인식→代案들의 인식→결과의 예측→결정의 도출→결정의 정당화→의사결정의 임시성 등이다.<sup>34)</sup>

31) 상계서, pp. 8~9.

32) James A. Banks, 최병모외 공역, 「사회과교수법과 교재연구」, 교육과학사, 1978, 제4장.

33) Shirley H. Engle/Anna S. Ochoa, 정세구 역, 「민주시민교육」, 교육과학사, 1989, pp. 216~217.

34) 상계서, pp. 103~107.

문제의 인식과 정의는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제기될 문제를 결정하고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데 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치의 가정에 대한 인식은 의사결정에서 가치의 문제가 본질적이며 가치들은 대안과 결과 모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안들의 인식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서 만들어보는 것이다. 결과의 예측은 각 대안들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들은 고려될 대안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결정의 도출은 가능한 대안과 그 대안에 대한 결과를 고려한 후에, 학생들은 그들이 실현하는 가치들에 의하여 나타난 가능성들에 대한 위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결정의 정당화는 그 결정이 근거 있고 합리적 선택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결정을 이성적 증거에 의하여 변호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의 임시성은 새롭고 서로 상충하는 의견이나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보충적인 정보에 의하여 결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集團相互作用의 機能과 社會參與의 機能을 신장시키려면, 가능한한 토의법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분단별 또는 조별로 사회조사를 시킨 후에 발표와 토의를 하게 한다. 그리고 학급회의를 매주에 열어서 교내의 문제를 의제로 택하여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참관한 후에 느낀점을 발표시키며, 기회가 있는대로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V. 맺는 말

통일교육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통일과 통일교육의 의미, 통일국가의 이념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통일교육은 통일대비교육과 통일 이후를 위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통일교육은 넓게 보아 민족동질성 회복 및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통일은 국가적 통일에 앞서 하나

의 민족이 되는 민족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족동질성 회복 및 민족공동체의 식 함양은 통일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또한 통일국가는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하고, 우선 남한에서 만이라도 민주주의가 잘 발전되어야 하므로 민주시민 양성은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기존의 교육철학,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및 자료면에서 재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학교는 물론 사회교육기관 및 매스컴이 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방법이나 기법면에 한정해서 개선점을 제시하면, 강의법으로 수업을 할 때도 가능한한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주고 스스로 판단해보게 하거나, 문답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세우고 증거수집과 검증을 거쳐서 결론이나 대안 또는 해결책을 찾게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청각매체를 많이 활용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자극하고 민족동질성을 느끼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토의법을 자주 사용하거나 학급회의를 이용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통일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기관에서도 통일교육 강좌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스컴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기획기사나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도하거나 방영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康宇哲·申澄植. "南北韓 國史教科書 (중학교)의 比較研究."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論叢, 제57집, 1990.
- 敎育政策諮問會議. 「南北統一에 대비하는 敎育方案」, 1990. 9.
- 국토통일원.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向」, 1990.
- 國土統一院. 「問答式 統一問題解説」, 1989.
- 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도해」, 1984.
- 김갑철. "민족통일의 개념과 남북한체제의 변화." 「한국민족주의와 통일」. 민주  
시민敎育을 위한 전국대학교수세미나. 한국국민윤리학회, 1992. 2.
- 金東圭. "남북분단 이후 敎育의 역사적 고찰-북한 사회주의 敎育과 敎育학의 기  
본구조원리와 성립 및 그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敎育學研究」 Vol 28.  
No. 3. 1990.
- 金東成. "新國際秩序와 韓國民族主義." 「신국제질서와 북한 그리고 민족통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통일문제세미나, 1992. 5.
- 김송일. "독일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敎育적 노력." 「敎育學研究」Vol. 28.  
No. 3. 1990.
- 金信一. "統一로 가는 敎育의 方向." 「새敎育」. 한국敎원단체총연합회, 1991.
- 문용린. "민족동질성 제고를 위한 敎育전략-敎育내용적 측면-" 「敎育研究」 Vol.  
28. No. 3. 1990.
- 朴柄基. "統一敎育의 倫理敎育的 接近과 課題." 「민족문화논총」. 민주문화 아카  
데미, 1992. 2.
- 朴聖祚. 「獨逸統一의 過程과 敎訓」. 통일연수원, 1992.
- 방영준. "통일국가의 이념적 좌표." 「한국민족주의와 통일」. 전개서.
- 白種億. "統一敎育의 課題와 再定立方向探索."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권  
제13호), 1992. 봄.

- 申龍激. "統一을 향한 東西獨의 接近이 南北韓의 交流에 주는 示唆." 「統一問題研究」제2권 1호. 국토통일원, 1990. 봄.
- 李相禹. "'이기는 統一'에서 '함께 사는 統一'로 - 統一政策의 再調整을 위한 提案." 「統一問題研究」제2권 4호. 국토통일원, 1990. 겨울.
- 李相周. "共產圈開放과 南北統一에 對備하는 教育方案." (討論要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1990. 9.
- 李榮德. "民族同質性 高揚을 위한 教育의 課題." 「教育學研究」Vol. 28. No. 3. 1990.
- 李容弼의. 「남북한통합론」. 인간사랑, 1992.
- 이종서. "獨逸의 統一과 教育." 「새교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1. 1.
- 李洪九의.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 박영사, 1984.
- 任賢模. "統一政策의 變遷에 따른 教育課程의 效率化 - 國民倫理科 統一教育을 중심으로 -" 「道德國民倫理科教育」第一號, 1990. 7.
- 장일조. "민족주의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한국민족주의와 통일」. 전개서.
- 정석홍.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 -제도적 측면-" 「教育學研究」Vol. 28. No. 3. 1990.
- 鄭世九. 「國民精神教育의 課題」. 教育科學社, 1985.
- 鄭世九.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의 실천방안」.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1992. 7.
- 鄭千九. "北韓의 對南政策과 우리의 對應." 「北韓體制的 變化와 南北關係의 展望」.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1991. 4.
- 曹龍男. "統獨過程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 「統一問題研究」第3卷 3號 (通卷 第11號). 統一院, 1991. 가을.
- 曹泰勳. "이데올로기 차이 해소를 위한 교육의 과제." 「새교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1. 1
- 統一院.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의 實踐과 制度化研究」, 1991.
- 許東燾. "北韓歷史의 敘述現況: '現代史'의 몇가지 문제점." 「북한의 현황과 인식의 문제」. 한국공산권협의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989.

홍연숙. "북한의 문화어와 언어정책." 「북한의 현황과 인식의 문제」. 전개서.

黃性模 編著. 「分斷社會의 評價的 認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Banks, James A. 崔秉模 外 共譯. 「社會科教授法과 教材研究」. 教育科學社,  
1987.

Engle, Shirley H./Ochoa, Anna S. 鄭世九 譯. 「民主市民教育」. 教育科學社,  
1989.